

† 찬미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선점한 구원의 보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2017년 9월 24일 연중 제 25주일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띄약벌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 (9/20) 영명축일과 생일을 함께 맞이한 류은정 효임 골롬바 자매님, 축하합니다!!!

2017년 9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하계 수련회: 9/15금 - 9/17일(Lake Tahoe)

지난 주말 2박3일동안 하모니, 트락회가 함께 레이크 타호로 청년 하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님 특강, 단합의 오락시간, 산책, 기도, 묵상, 그리고 깨알 대화로 영성과 재미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해주신 신부님과 오uckland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원해주신 요아킴회 (\$200), 안나회 (\$200) 어르신들, 성가대 자매님 (익명, \$200), 그리고 장루시아 자매님 (\$50)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최 주임 신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 (9/20 수요일)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 모임이 9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 됩니다. 이번에 성서모임을 시작하는 류은정 골롬바, 홍상미 세레나, 이윤지 소피아 자매님들이 성서모임을 통해 많은 은총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주보나눔 봉사(9/24 주일)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영어미사 (9/24 주일)

뜨락, 하모니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영어미사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3시부터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어미사 후 잠시 모여 장궤틀(미사 중 무릎을 꿇는 틀) 받침대에 떨어진 쿠션을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금새 끝날테니, 후다닥 봉사 후 저녁식사해요~

추석합동위령미사 (10/1 주일)

10월 1일 교중미사중 추석합동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지향을 하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 1주기 기일 연도 (10/1 주일)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 (신부님 모친) 1주기 기일 연도가 10월 1일 주일 미사 후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연도에 함께 참석한 후에 하모니 회합이 있겠습니다.

영명축일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20 류은정 호임 골롬바

9/21 김재욱 마태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관심 영적자료 구입***: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마련해 사랑방에 비치하고 공유하며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영적 교육자료 제목을 회장단에게 알려주거나 링크(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l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 에 올려주세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ea2T3f9B3UcO>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Oakland, California 94605

6226 Camden Street